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항상 예수와 함께      성경: 누가복음 22장 24-32절

Tag: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24-32)

평신도 리더에 도전하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평신도 리더가 된다.

리더란 말 그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인도하는 사람은 앞장서야 한다. 앞장선다는 말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 보았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이다.

권하되 안내하듯이 권하는 사람이다. 섬기듯이 권하는 사람이다. 비행기의 스텐디스나 관광지의 안내원을 상상하면 좋다.

평신도 리더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좋다.

1. 자신의 삶에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신감 상승, 위기극복 능력 배가, 활력 유지)
2.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
3.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미래형)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그때는(미래) 어엿한 리더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능숙한 리더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족하기도 하고 마귀의 도전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본문 말씀의 핵심적 가치)

4. 항상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30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28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항상 만족하게 되고, 항상 귀중한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먼저는 28절이고 그 다음이 30절이다.

28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힘들고 위험한 일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고난 보다는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도전해야 한다.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여기에서 ‘시험’이란 ‘시련’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유혹’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다.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뜻하고, ‘유혹’이란 죄의 유혹을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성이 있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리더들에게 주시는 테스트를 뜻한다. 즉 리더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실성’에 대한 시험을 하신다는 뜻이다. 어떨때는 ‘순종’에 관한 시험을 치루신다. 어떨때는 취약한 죄에 빠지는지를 시험하신다. 이때 리더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시험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이 아님.)

몇 번 고배를 마시다가 결국에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으니 끊임없이 리더쉽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물질(돈), 쾌락, 명예욕, 권력욕)

24절은 그 혼한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명예욕)

####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만물은 경쟁한다. 하다못해 풀들도 지독스럽게 경쟁한다. 사실 앞서거나 뒤쳐거나 하는게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비정한 세상이라고 한탄한다.) 그런데 성경은 1등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지만 1등만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낙오자를 기억한다.(한 달란트 가진 자) 낙오자는 지옥행이다.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의 두배만 남겨도 1등과 동등한 상을 받는다.(두 달란트 가진 자) 또 성경은 나약하지만 남다른 노력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을 칭찬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3:8)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네 곁에 있는 형제와 경쟁하기 보다는 너 앞에 있는 마귀와 경쟁하라고 한다. 네 형제가 너보다 앞서가는 것을 너는 기뻐해야 한다. 왜냐면 그 친구가 나를 돕기 때문

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보다 더 힘겨운 형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식 경쟁이다.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된 것이다.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

-반면에 교회를 취사선택하는 교인들도 있다. 물론 그들은 교회의 리더는 아니다. 이들은 교회가 시험에 들고 분쟁이 있거나 위기감이 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긴다.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 많이 있다.(큰 교회 교인들의 상당 부분은 작은교회가 어려울 때 옮겨간 자들이다.-축구장 교회, 관중교인)

-그러나 리더들은 교회와 동고동락한다.

###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How?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되는가? 답은 27절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어미가 아기를 돌본다. 아기가 어미를 돌보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세상의 큰자들은 수 많은 작은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들을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자들이 큰자를 섬기려면 많은 작은 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자는 작은 자들을 여럿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큰 자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복종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투정 부릴 때 달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돌본다는 뜻이다. 보살핀다는 뜻이다.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는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겠지만, 27절에서

섬기는 것은 자기보다 작은 자들에게 하는 헌신을 말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싸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시험’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다는 원리이다.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탄이 너의 실체를 밝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는 뜻이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였다.(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이다.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면 부끄러움에 빠진다.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과 부끄러움에 빠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인격이다.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도 가능하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부끄러움에 빠지는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흔하게는 누추한 자기합리화를 이용하거나 결국은 마귀에게 발목을 잡히고 만다. 심하면 다중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형제와 같은 리더가 되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